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다크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에 대한 헥터 아발로스의 비판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junamos/221191205807

출애굽기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다크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에 대한 헥터 아발로스의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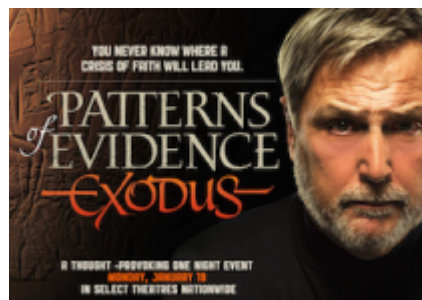


전아모스

2018. 1. 23. 4:49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다크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에 대한 헥터 아발로스의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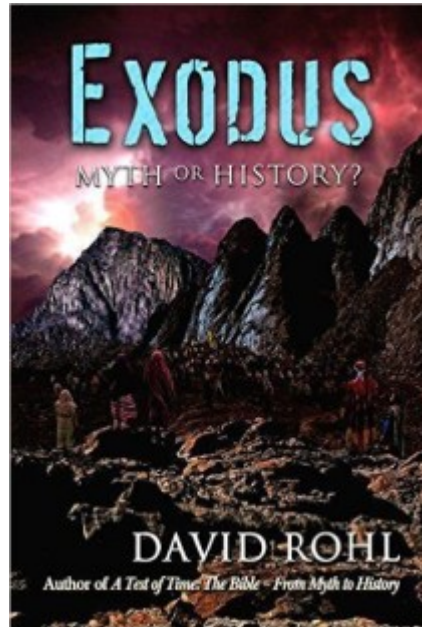
헥터 아발로스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종교학 교수로써, 하버드대학교에서 히브리 성서와 고대 근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5년 한 출애굽기와 가나안 정복이 고고학적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변증 다크멘타리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를 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다크멘타리는 핑거오브토마스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한 기독교 변증 블로거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헥터 아발로스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PATTERNS OF POOR RESEARCH— A Critique of Patterns of Evidence:Exodus"라는 제목으로 토마스 마호니가 제작한 그 다크멘타리가 비전문가의 어설픈 그리고 편향된 해석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출처는 아래에 있다. 사진 중 일부, 그리고 각주 전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포스팅에 옮기지 않았다.



나는 최근 토마스 마호니가 2015년 제작한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 출애굽-이하 패턴스>라는 새로운 다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메일을 받았다(예고편 보기). 나는 본적이 없었고, 변증가들이 어떤 새로운걸 말하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2시간이라는 시간을, 이미 수십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거부했던, 그런 재활용된 논의를 보는데 낭비해야 했다.

그 다큐멘타리는 기본적으로 데이비드 롤의 책, <Exodus: Myth or History? (St. Louis Park, MN: Thinking Men Media, 2015)>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 책의 커버에는 저자를 "이집트 학자이자 파라오 시대 이집트와 성경 간 역사적 관계를 연구한 역사가이자 고고학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 롤은 대다수 학자들이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이론의 옹호자로 유명하다.

론 왓츠의 < The Exodus (1998)> 나 심차 야코비치의 < The Exodus Decoded> 같은 것들도 이런 장르다(크리스 허드 박사의 비판을 보라).

다큐멘타리의 전체적인 구조

패턴스는 여느 흔한 변증 다큐멘타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A.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공정하게 "진실"을 추적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백한다.

B.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C. 성경의 역사성을 옹호하는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D. 증거는 C에 호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리 스트로벨의 작품(예를 들면 '예수 사건' 등)에서 주로 반복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증가들의 방식을 시몬 그린리프(Simon Greenleaf, 1793-1853)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s, Examined by the Rules of Evidence Administered in Courts of Justice (1846)>이라는 책을 통해 성경을 재판에 올려놓아 심리한다는 식의 책을 쓴 하버드 법대 교수였다. 판결은 뻔하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자 대다수가 가진 문제점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좋은 정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 지식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다. 마호니는 그런 주장들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능력인 고대 언어들을 읽을수가 없고 룰이 그에게 제공한 말도 안되는 논증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고고학이나 고대 근동 문학에 대해서도 미숙하다.

실제로 마호니는 자신이 카메라에 비추는 바로 그 고고학적 유물들과 기록들조차도 신중히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는 반대되는 강력한 자료들(아르마나 서신 등)도 생략한다.

마호니 스스로도 자신이 전문가가 아님을 인정한다. 게다가 대다수 학자들도 그의 다큐멘타리에 반대할거라고 그가 인정할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다큐를 보면서 느낀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 가설

패턴스는 출애굽이 약 기원전 1450년에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고 논한다. 마호니는 만약 출애굽이 일어났다면 기원전 1250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개연성 있다고 생각되는 학자들에 의한 논증과 그것을 대치시킨다. 후자의 연대는 출애굽기 1장 11절의 람세스에 대한 언급에 기초한다. 파라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진 람세스 2세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은 출애굽기 1장 11절을 쓴 사람은 분명 이 통치자 이전은 아닐 것임을 함축한다.

표준 연대에 의하면, 람세스 2세는 약 기원전 1279-1213년 동안 다스렸고, 따라서 출애굽기 1장 11절의 저자는 기원전 1450년 어간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었을 리가 없다.

비록 출애굽기 11장이 람세스 1세, 즉 기원전 1290년대 2-4년 정도 다스린 그를 암시한다 할지라도, 출애굽기는 기원전 1250년보다 더 이른 사건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람세스라는 이름의 도시는 기원전 1450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람세스 2세의 시기로 출애굽 연대를 설정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 대다수 교육받은 기독교 변증가들은 바로 그 기간에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중대한 저명한 인물이나 어떤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여리고는 당시에 도시로 자리 잡지도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파괴를 부인할 수 밖에 없다. **패턴스**는 그 역시도 인정한다.

이런 난제들을 피하기 위해, **패턴스**는 몇몇 사건들의 연대를 재설정하고 심지어 전체 고고학적 시대도 그렇게 해버린다. 예를 들어, 룰은 람세스 2세의 통치의 시작을 기원전 943년으로 잡아버린다(그의 책 164페이지). 즉,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사람으로 만든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솔로몬 4년(기원전 967년으로 볼 수 있는)이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고 말한다. 그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출애굽 연대가 대략 기원전 1447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간에, **패턴스**는 만약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1450년으로 설정한다면 고고학적 증거가 성경 이야기에 잘 들어맞을 것이라고 논한다.

이 다큐멘타리는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 중기왕국 기간(전통적인 연대에 따르면 약 기원전 2055년-1650년)에 이집트에 살았다고 또한 주장한다.

패턴스는 더 나아가 요셉이 섬겼던 파라오가 아멘넴하트 3세(대략 기원전 1860-1814년; 하지만 룰은 자신의 책에서 기원전 1678-1631년으로 제안한다)라고 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나는 단지 **패턴스**에서 출애굽과 여리고 정복 이야기의 역사성에 대해 지지하는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A.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기 왕국 시대 이집트에 살면서 노예로 지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 B. 이집트에서 야곱과 요셉이 있었다는 것과 그들의 지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 C. 이집트에 임한 재앙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 D. 정복 이야기는 고고학적 증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하솔의 파괴에 대한 증거는 더욱 강력하다.

전혀 새롭지 않은 낡은 주장

그 다큐멘타리는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한다는 식으로 설득하려한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1980년대부터 내 구약 수업에서 심지어 **패턴스**에서 주장되고 인터뷰한 사람들 몇몇을 다루는 바로 그 주제에 관한 논문들을 숙제로 내주었다. 그것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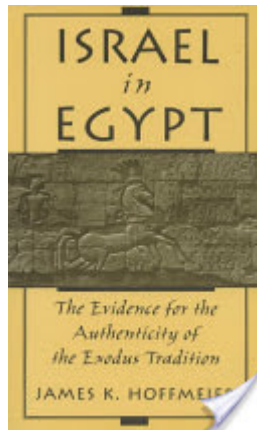
John J. Bimson and David Livingston, "Redating the Exodus,"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3 (5, September/October, 1987) 40-53, 66-68.

Baruch Halpern, "Radical Exodus Redating Fatally Flawed,"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3 (6, November/December, 1987) 56-61.

John J. Bimson (and M. Bietak's comments), "A Reply to Baruch Halpern's 'Radical Exodus Redating Fatally Flawed,'" in BAR November/ December, 1987" *Biblical Archaeology Review* 15 (4, July/August, 1988) 52-55.

패턴스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바룩 할펀 교수는 효과적으로 얼마나 빈섬(Bimson)이 자신의 출애굽 이른 연대 설정을 위해 성경이 말한 내용을 무시하거나 모순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가 이미 고려했던 것들 대부분이 **패턴스**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새로운 것이라해도(이스라엘을 언급했을지도 모르는 베를린 받침대 조각 하나)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을 확립시켜줄 수 있을만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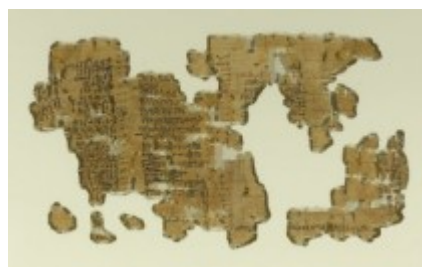


이 자료의 거의 모든 것도 이미 제임스 K. 호프마이어의 책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에 서 다루어졌다. 언급했던 마호니의 다큐멘타리의 주요 출처는 데이비드 롤의 책이다.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브룩클린 파피루스

패턴스는 출애굽의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해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 주요 증거 중 일부로써 **패턴스**는 윌리엄 C. 헤이즈가 편집하고 번역한 <Papyrus of the Late Middle Kingdom in the Brooklyn Museum (Brooklyn, New York: The Brooklyn Museum, 1955)>에 호소한다.



이 파피루스는 노예였던 수많은 사람의 이름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패턴스**는 그 이름들 중 70%가 셈어 이름이라고 한다. 실제로, **패턴스**는(약 12분 56초부터) 이집트에 있는 셈어 이름들의 발견을 이스라엘 민족의 발견들과 동일시하는 것 같다. 이런 동일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는 '셈족'이라는 표현은 '셈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패턴스**도 인정하는데 간혹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다. 게다가 중기 혹은 후기 청동기 시기에 고대 근동 지역에 셈어를 사용한 고대인 대다수는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아카드어(바빌로니아어 혹은 앗시리아어)를 사용한 메소포타미아인들 전부, 그리고 서쪽 셈어 방언의 일부를 사용한 사람들을 포괄한다. 이 다큐멘타리가 밝히지 않는 사실 하나는 우리는 기원전 10세기 이전까지 특징적인 히브리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계학적 개연성을 따지자면, 이집트에서 셈족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셈족을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욱 그럴듯하다.

유사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있다. 아라비아어, 즉 셈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1억 명 이상이다. 그에 비해 유대인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천 4백만 명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셈족이 세계 기준이며, 자동적으로 이집트에서 셈족을 이스라엘인 혹은 히브리인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통계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바로 그 장면(약 51분 13초에서 25초 사이)에서 나타나는 브룩클린 파피루스가 보여주는 것도 이스라엘인도 히브리인도 아니다.

셈어와 이스라엘 민족 이름에 대해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들이 이교신, 아낏이나 바알이나 라쉬푸(레세프)와 결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중 그 어느 것도 이스라엘인의 특징적인 야훼 이름, 즉 야훼를 사용한 이름은 하나도 없다. 제프리 티게이 교수는 이러한 이름들에 대해서 탁월하게 논한다.



우리는 사실 기원전 9세기 모압 비석(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발견전까지는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는 YHWH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이 야훼의 이름을 아담 세대부터(창세기 4장 26절)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족장들에 의해서도 사용된 이름(창세기 12장 7-9절. 하지만 출애굽기 6장 3절은 그 반대)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비해 왜 이렇게 후대에 나타날까? 롤은 브룩클린 파피루스에 있는 이름들이 성경의 이름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며, 그것들이 성경의 이름들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혹은 동족어라고 주장한다(그의 책 135페이지).

롤의 논리는 마치 노예 목록에서 '굴리엘모'라는 스페인 이름을 발견하고선, 서로 다른 언어지만 동족어 혹은 같은 어원을 갖기에 그것은 '윌리엄'이라는 어떤 특정한 미국인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윌리엄은 미국인, 아일랜드인, 스코틀랜드인 기타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 누구에게서나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다.

이것이 바로 무나히마트(성경의 므나헴과 어원이 같다)라는 이름들을 일일이 언급하는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우리는 시리아 북쪽 연안의 (기원전 14세기에 번성했던) 우가릿에서도 히브리어로는 '무나히무'로 발음되는 몇몇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롤은 이집트에 살았던 그러한 셈족 사람들이 하란이 아니라 주로 시리아 연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증거로써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인의 특징적인 이름이지 이스라엘인일 수도 있고 비이스라엘인일수도 있는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 다큐멘타리가 야훼를 사용한 이름을 발견해냈다면, 정말로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따라서 브루클린 파피루스는 이스라엘이 아닌 서쪽 셈족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욱 그럴 듯하다.

이집트에 야곱의 집이 있다?

패턴스는 텔 엘-다바(Tell el-Dab'a), 즉 나일 삼각주 펠루시움의 아바리스의 고대 이집트 도시에 야곱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텔 엘-다바는 호주 고고학자 만프레드 바이탁(Manfred Bietak)에 의해 1966년부터 발굴되었다. 이 장소는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400년에 걸친 고고학적 유적을 담고 있다. 집 하나가 F1지역 지층 d/2으로 지정된 북시리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고, 바이탁에 의하면 12왕조의 끝무렵, 즉 대략 기원전 1,800년의 것으로 연대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미텔잘 하우스(Mittelsaal Haus; 중간 홀을 가리키는 독일어로, 방을 둘러싼 홀/뜰이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라 하며, 시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양식이다.

롤은 순진하게도 논하기를(28분 19초), 야곱이 북 시리아에서 왔으므로, 야곱은 반드시 이집트에서 시리아 양식의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 했다고 한다.

이런 비약은 어리석어 보일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 증거와도 반대된다. **패턴스**는 오직 야곱만이 그런 집에 살수 있었다는 것만 보여준다. 성경은 야곱이 고센에 정착했다고 주장한다. 고센은 너무 넓어서 특정집이 야곱의 것이라 꼬집기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 일리노이에 오두막에 관한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특정한 증거 없이 그 오두막은 링컨이 살았던 오두막이라 확신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다.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오두막에 살며,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링컨 근처에 살았다. 그러니 어느 한 오두막이 링컨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오두막의 형식과 유사하는 이유로 그것이 링컨의 것임에 확실하다는 것은 비약이다.

더 나아가, **패턴스**는 성경이 야곱이 실제로 선호했던 생활양식을 묵과한다. 야곱의 가족은 자신들을 목자라고 칭하며(출애굽기 47장 3절), 야곱은 천막/장막에 살기를 또한 선호했다. 다음의 구절들을 보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창세기 25장 27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창세기 31장 25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창세기 31장 33절)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발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창세기 33장 17-20절)

창세기 33장 17절에서 '집'이라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바이트(בַּיִת)는 반드시 아바리스에서 발견된 그런 건축물을 언급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거주를 말할 수 있다. 바이트는 어떤 건축 구조물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단위를 가리킬 수도 있다. 창세기 7장 1절을 참고하라.

숫자 12의 중요성

지층 G/4라 불리는 후기 고고학적 층에서, 발굴자들이 '궁전'이라 불리는 구조물 하나를 발견했다. 룰은 이것은 미텔잘 하우스보다 웅장하게 지어진 거주지라 말한다(그의 책 107페이지). 그는 이것이 또한 요셉의 궁전이라고 말한다(그의 책 108페이지, 그림 82).

룰은 (29분) 이 아라비스의 궁전이 야곱과 요셉과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 요소들이란 이것이다.

A. 12개의 무덤

B. 집의 일부를 지지하는 12개의 기둥

론은 이 12개의 건축 요소들이 야곱의 12아들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방정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2개의 무덤부터 시작해보자. 론은 분명 로베르트 쉬슈틀(Robert Schiestl)이 이 무덤들에 대해 보고한 것들(독일어)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분명 12개 이상의 무덤이 있다. 하지만 롤은 자기마음대로 12개를 선택했다. 그런 것은 쉬슈틀이 같은 지층에 한 그룹으로 묶은 것이 아니다. 롤이 지정한 숫자들을 따라 쉬슈틀이 지정한 것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층 d/1.1: 무덤 1, 2, 3, 4, 5, 6, 7, 8, 9, 10, 11

지층 d/2: 무덤 12

우리가 비록 무덤 12를 다른 11개의 무덤과 같은 지층에 둔다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해당 지층에 할당된 더 큰 무덤 그룹의 일부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즉, 내가 지층 d/1.1에 있는 무덤을 세어보니 적어도 21개다.

롤은 단지 다른 무덤들을 보여주기만하고 그것들에 라벨을 붙이지 않는다(롤이 지정한 무덤 11의 오른쪽에는 작은 무덤 그룹이 있다)

시청자는 그가 다른 무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잘 들어보아야 한다. **패턴스**의 약 29분 27초쯤, 롤은 "고고학자들은 12개의 **주요한** 무덤들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이 "**주요한**"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그가 다른 무덤을 무시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그 것들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쉬슈틀은 모든 무덤을 네 개의 다른 그룹으로 구별한다. 롤은 그저 자신이 야곱의 12아들과 12개를 묶어 싶어한다는 이 유외에 다른 아무런 근거 없이 12을 임의로 선택할 뿐이다.

그것들 중 일부에는 사람의 유적들도 있는데, 롤은 어느 것이 요셉의 형제들인지 설명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롤이 8(FI m/19-Grab 22)이라고 지정한 무덤에서 어떤 17-18세의 한 사람의 유적이 발견되었다(Schiestl, Tell El-Dab 'a XVIII, p.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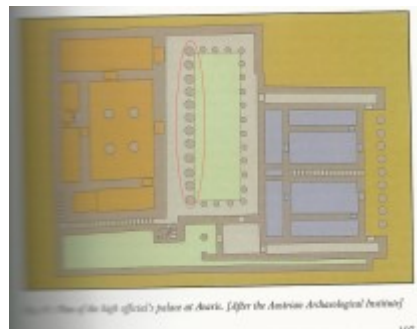
그리고 롤이 2(FI I/19-Grab 1)라고 지정한 무덤에서는 2사람의 남성의 유적과 한 사람의 '나이 많은' 여성의 유적이 발견되었다(Schiestl, Tell El-Dab 'a XVIII, p. 340).

자, 야곱의 아들들 혹은 야곱의 가족 중 누가 거기에 있을까?

롤의 12기둥도 유사하게 임의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선택된다. 롤은 그저 그 건축물의 전체 기둥 중 일부를 선택했다. 그의 책의 설명을 직접 읽어보자(그의 책 107페이지).

"이 인상적인 건물은 12개의 나무 기둥의 포르티코에 의해 서있다. 그 기둥을 지나 넓은 홀로 들어가면, 거기의 지붕은 훨씬 더 많은 기둥에 의해 서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적어도 그 빌딩에는 16개의 빌딩에 대한 묘사를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16개의 기둥이 있는데, 왜 포르티코의 12기둥이 야곱의 아들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게다가 롤은 12개의 기둥보다 더 많은 기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그의 책 107페이지). 내가 그 건물의 특정 구역에 있는 기둥을 세어보니 전부 30개의 기둥이 있었다. 만약 그의 책의 그림을 본다면, 그가 자신의 상징적 해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저 12개를 선택했을 따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롤은 그런 기둥 선택에 무슨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그냥 그는 그렇다고 말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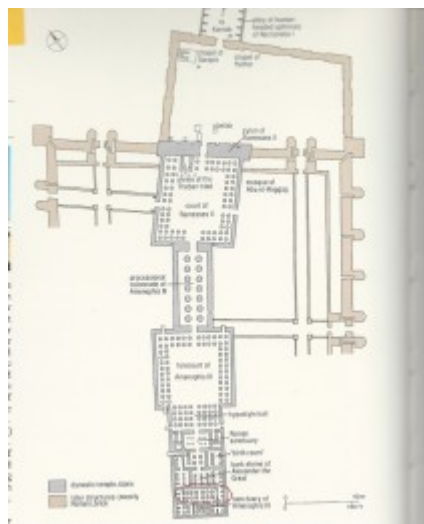
게다가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르마나는 기원전 14세기 경 융성했던 곳인데,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복잡한 것에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12라는 건축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디터 아놀드가 아르마나의 이웃에 대해 묘사한 바에 의하면,

"더 작은 집들의 좋은 실례가 황야에 있는 '노동자들의 마을'에서 70 x 70m 사이즈로 발견된다. 그것은 다섯 개의 좁은 거리가 여섯 개의 변화가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12개로 나뉜 집들로 구성되어 있다"(Dieter Arnold, *The Encyclopedia of Ancient Egyptian Architecture* [New York: J. B. Tauris, 2003], p. 11.)

그러면 롤은 12개의 구별된 집이 야곱의 12아들이 아르마나에 살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할까?

멤피스 카르낙 대학교 웹사이트를 보면, 카르낙의 성전의 다주식 홀에는, "중앙 회중석은 21미터 높이의 거대한 12개의 기둥들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고 한다.

아메노피스 3세(기원전 1391-1353년)의 성소에는 오직 12개의 기둥으로만 있는 특정한 구별된 구역이 있다. 이것도 야곱의 12아들의 상징인가?



(John Baines and Jaromír Málek, *Atlas of Ancient Egypt* [New York: Facts on File 1980] p. 86).

실제로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12개의 기둥으로 된 것 우리 마음대로 구별할 수 있다. 특정 구조물과 연결된 기둥의 숫자들은 상징 때문일수도 있고, 아니면 지탱하는 건축의 무게 때문일수도 있다.

12이라는 숫자는 고대 세계 속 이집트에서 분명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예를 들면 12궁도나 1년의 열두 달 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이야기를 만들 때 이미 존재 하던 그러한 12의 상징을 차용한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마호니나 룰은 둘 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지위

피라미드의 상부구조를 떠받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느 한 무덤(F/1-P19, tomb 1)의 유적들이 텔 엘 다바에서 발견되었다(패턴스 약 29-32분). 그 무덤은 거대한 장례식 상(statue)의 머리를 담고 있었고, 룰이 요셉의 집이라 생각한 궁전에 가까이 있었다.

룰은 그것이 요셉을 묘사한 상이라고 믿는다. 룰에게 있어서 그 무덤의 크기나 장식이 이집트에서의 요셉의 지위와 맞아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상은 (야곱의 조상집으로 생각되는) 시리아에서 온 아시아인들의 것으로 묘사되는 헤어스타일과 피부톤을 지니고 있었다.

룰은 그 상이 '불꽃처럼 타는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묘사하며, 그는 그것을 아멘헤메트 3세(룰이 요셉 시대의 파라오라고 여긴, 그의 책 117페이지) 시대의 것으로 일치시킨다.

하지만 룰이 그 상의 오른쪽 어깨를 설명할 때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흥분해서 아래로 떨어트린다. 왜일까? 그 이유는, "이 상은 이집트의 색깔 및 다채로운 색의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붉은 색과 검은 색의 줄무늬에, 크림색, 노란색, 라이트블루로 나타나는 물감을 볼 수 있었다."(그의 책 116페이지)

이것은 룰에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3절의 영어 번역에 따르면 요셉은 다채로운 색의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룰의 동일시의 첫 번째 문제는 야곱의 집의 동일시에서 나타난 문제와 같다. 룰은 그것이 요셉의 헤어스타일, 요셉의 피부톤, 요셉의 옷의 특징임을 설명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백명의 아시아 공직자들이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다채로운 색의 외투를 입었다. 람세스 2세의 미라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역시도, 그가 붉은 색 머리를 가졌고 그것은 아마도 유전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의 머리카락 색은 아시아 출신에게만 유일한 것도 아니었다.

뼈?

룰은 자신의 대단한 이론들을 구성하기 전에 관련 고고학적 보고서들을 거의 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요셉의 무덤을 지지하는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그의 책 11-112페이지).

"하지만 이 방은 뭔가 이상했다...아무것도 없었다. 관도, 뼈도, 도자기도, 미라 목걸이도, 무기도, 금도, 보석같은 돌도...하얀 석회암 외에는 아무것도...없었다."

그는 자신의 증거를 위해 로베르트 쉬슈틀의 요약이 있는 해당 웹사이트를 인용한다.

이 웹사이트의 개관이 훌륭한 학자들이 읽어야 하는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고와 혼동되어선 안 된다.

만약 룰이 쉬슈틀의 훨씬 전문적이고 복잡한 보고서를 본다면("The Statue of an Asiatic Man from Tell el-Dab 'a, Egypt," Egypt and Levant 16 [2006]), 그는 적어도 자신의 주장 중 하나는 쓸모없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의 전체 해석이 엉망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해당 논문(135페이지)에서, 쉬슈틀은 이렇게 말한다.

"장례식의 방에서 나온 뼈조각들은 두 사람의 것으로 식별된다. 한 성인 남성과 한 성인 여성."

다시, 룰은 그 궁전과 연관된 12개의 무덤이 야곱의 12 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무덤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 이상의 무덤이다.

비록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자신들의 아내(들)과 묻혔다고 말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룰은 그 무덤에는 뼈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한 그의 연구 방식에 결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무슨 무덤?

석회암 머리가 발견된 무덤과 관계가 있다는 룰의 추측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 동상의 일부가 적어도 각기 다른 세 개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쉬슈탈에 의하면, "그 무덤들 파편들은 각각 p/19-Nr. 1(머리, 주먹, 옷의 일부[fringe of garment], 좌석의 일부), p/21-Nr. 1(오른쪽 어깨), o/20-Nr. 11(왼쪽 발)."에서 발견되었다. 즉,

무덤

p/19-Nr. 1: (머리, 주먹, 옷의 일부[fringe of garment], 좌석의 일부

p/21-Nr. 1: 오른쪽 어깨

o/20-Nr. 11: 왼쪽 발

무덤 p/19, Nr. 1 은 룰이 원래 장소라고 가정한 곳이지만(비록 룰이 다른 무덤에서 그 파편들이 발견되었다는 걸 알고 있을지라도), 쉬슈탈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 쉬슈탈은 이렇게 말한다(그의 논문 135페이지).

"비록 이 무덤이 그 상의 원래 있던 곳이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1년뒤 20미터 동쪽으로 떨어진 지층 d/1에서 발견된 무덤 p/21-Nr.1도 자격이 없지 않다."

보다 복잡한 것은, 무덤 p/19-Nr. 1은 무덤 p/21-Nr. 1 과 다른 지층(d/2)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Schiestl, Tell El-Dab 'a XVIII, p. 84: "p/19 Nr. 1 in Str. d/2 datiert und p/21-Grab 1 in Str. d/1").

그 상의 일부가 그 무덤에서 롤이 원래 장소라고 생각하는 무덤으로 이동했다면, 적어도 전혀 반대의 일도 가능성이 있다. 그 상의 일부는 롤이 선호하는 위치에서 다른 무덤으로 옮겨졌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는 거기에 묻인 사람의 신원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하기 전, 롤의 빈약한 조사가 얼마나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여준다.

그 상이 발견된 무덤의 지층도 확실하지 않다. 롤은 그것을 요셉의 궁전과 연결시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이탁은 말하길("The Center of Hyksos Rule," 100페이지),

"이 무덤이 시리아 스타일의 미텔잘 하우스에 속하는지 혹은 지층 d/2에 속하는지 확실치 않다. 그것은 그 위의 지층(즉 d/1)의 13번째 왕조의 전임자의 궁전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그 궁전에 속하는 이른 무덤이라면..."

만약 그것이 롤이 '요셉의 집'이 아니라 '야곱의 집'이라 부른 것에 속한다면, 그것이 왜 요셉의 무덤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더욱 어려워진다.

요셉의 선조들은 성경에 의하면 '동굴'에 묻히기를 선호했다(창세기 23장 9절, 50장 13절). 그리고 야곱은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가 동굴에 장사되었다.

무슨 옷?

롤이 그 상과 동일시하는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37장 3절의 그 히브리어 표현 '케토네트 파심'(כִּתּוֹנֹת פָּאִים)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제로 RSV는 "소매가 달린 긴 로브"(a long robe with sleeves)라고 번역한다.

존경받는 성서주석가 에브라임 스파이저는 "전통적으로 '다채로운 색의 외투'와 대안적인 '소매가 달린 외투'는 문맥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심지어 색이든 소매든 그렇게 생각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긴 소매와 다채로운 색의 의복이 고대 근동에서는 일상적이었기에, 요셉의 외투는 조금 더 특별해야만 한다. 스파이저는, 금으로 수놓아져 있거나 혹은 장식이 달린 메소포타미아의 의식용 로브(ceremonal Robes)를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37장 외에 이 표현(케토네트 파심)은 사무엘하 13장 18절에 한 번 더 언급된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따라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요셉이 입었던 것을 입을 수 있었고, 사무엘하 13장 18절은 왕족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며, 평범한 다채로운 색이나 긴 소매 로브와는 연결되는 것 같지 않다.

만프레드 괴르그, 이집트의 어원학에 기초하여, 그 의미는 단순히 '염색된'(gefärbt)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집트 왕족의 의상(시리아-팔레스타인이 아니라)과 연결한다. 괴르그는,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미래의 지위에 대한 예견적/예언적인 표현을 삽입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말해, 희박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기초해서 특정 인물의 신원을 주장하는 거창한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의 감정(identifications)을 반박하는 증거

패턴스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소위 '야곱의 집'이나 '요셉의 궁전'에 특정 인물의 신원을 논할 때 주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런 궁전에 산 누군가가 엘 혹은 야훼를 경배한 목자(성경이 야곱의 가족을 그렇게 정의하지만)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롤 자신이 언급하는 바, 시리아의 유명한 신, '바알 자폰'의 도장을 생략한다는 점이다. 롤은 자신의 책(165페이지, 그림 132)에서 그 좌소를 보여주지만, 그것이 자신이 '요셉의 궁전'이라 생각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 좌소에 대한 바이탁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북시리아 날씨의 신을 묘사한 원기둥 도장의 새김은 지층 d/1, 13번째 왕조 초기 궁전의 북부에서 발견되었다."

원기둥 도장에 전문가인 에디스 포라다는 그 사람 모양이 "시리아의 날씨의 신"이라고 묘사한다. 또한 그녀는, "그 날씨의 신이 배에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은 이 뱃사람들의 수호자로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야곱이 엘 혹은 야훼의 경배자였다고 묘사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야곱은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실제로 '야곱의 집' 혹은 '요셉의 궁전'에서 창세기가 말해주는 야곱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습관인, 목자나 텐트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대로 증거들은 바알 자폰을 혹은 다른 이교도 신을 예배한, 그리고 바다여행과 호전적인 삶의 양식을 가치있게 여긴 입주자를 제시한다. 그런 모습은 결코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이나 요셉이 아니다.

열 번째 재앙: 무덤의 문제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윤고딕110';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윤고딕110';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1.0px} span.s1 {font-kerning: none}

패턴스는 출애굽 직전에 언급된 대규모의 파괴와 재앙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출애굽기 7-12장 참조).

해당 다큐멘타리는 (약 1시간 22분 7초) 시체가 널부러져 있는 듯한 무덤 하나를 보여준다. 룰에 의하면 이것은 성경이 묘사하는 갑작스러운 죽음 혹은 유행성 죽음에 대한 증거이다. 룰은 이렇게 말한다(그의 책 154페이지).

“나의 견해는, 이런 섬뜩한 발견이 출애굽기의 열 재앙에 대한 실제 고고학적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것이 무슨 재앙이었든지 간에.”

룰은 곰쥐에 흑사병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곰쥐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강기슭의 도시 아바리스는 배를 통해 타고온 감염된 쥐들로 인해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룰은 자신이 골학적인 분석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부정하기도 한다.

출애굽기 11장 4-7절에서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구절을 포함하여 출애굽기 12장은 명백히 이렇게 말한다.

- A. 이집트의 장자에게 내려진 그 재앙은 야훼에 의해 (혹은 그의 천사에 의해; 출애굽기 12장 23절) 일어났다.
- B. 지정학적으로, 그것은 이집트 전체에 일어났다.
- C. 사회적으로, 그것은 이집트의 사회 계층 전체에 일어났다.
- D.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것에 적합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을까? 첫째, 이집트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룰은 이 문제를 알고 비-역사적 설명으로 도망친다.

“...열 번째 재앙은 분명 과학과 기후학의 방식으로 설명되기에 가장 어렵다. 하지만, 만약 나처럼 당신이 출애굽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면, 비록 서사적 짜임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전설 양식은 그러한 본래 과대포장과 과장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의 책 154페이지)

룰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집을 식별할 수 있는) 문학적인 역사라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유사하다.

어쨌든 그 재앙들은 전부 비역사적이고 문학적 과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롤이 다루고 있는 무덤도, 만약 우리가 그가 주장하는 대로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1450년으로 설정할 경우 그 성경이 말하는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윤고딕110';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윤고딕110';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1.0px} span.s1 {font-kerning: none}
```

만약 누군가가 신중하게 그 무덤을 본다면(1시간 22분 7초), 고고학자들이 “F 1 P17 Grab 1”이라고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Grab은 독일어로 ‘무덤’을 가리킨다. 같은 기록이 롤의 책에 있는 사진에서도 발견된다.

내가 고고학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그런 기록에 집중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왔다. 나는 주요 발굴자인 만프레드 바이탁이 실제로 이 발견의 연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폈다.

“텔 엘-다바의 무덤 무더기는 지층 G의 끝무렵 시기(약 기원전 1710년)의 것이다.”

그런데 만약 패턴스가 논하는대로, 기원전 1450년에 출애굽이 있었다면, 이 무덤 무더기는 출애굽 수백년 전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우리가 각각의 지층을 발굴자들이 텔 엘-다바에 허락하듯 100-134년까지 더 후대로 잡는 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롤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그의 책 85페이지와 305페이지 비교), 그래봤자 기원전 1566년이다. 즉, 그 무덤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원전 1447년의 출애굽 재앙들과 연결될 수 없다.

패턴스는 이 사실을 놓친 이유 혹은 바이탁이 들려주는 이른 연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만약 그것이 밝혀진다면, 롤과 마호니의 고고학적 분석이 미숙하다거나 혹은 단순히 지적 불성실을 드러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리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바이탁의 연대를 밝혔어야 했다.

롤은 확실히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한 치명적인 박테리아 감염, 비교할만한 즉 전염병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1348049년 유럽의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다.

다니엘 앤토니(“The Archaeology of ‘Plague,’” *Medical History Supplement* 27 [2008]:101-114) 에 의하면, 이것은 런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하다.

“흑사병 유행의 영향력은 절망적이었다. 그 범위를 말하자면, 당대의 한 목격자는 거의 매일 200명의 시체를 묻어야 했다고 진술한다.”

이것을 텔 엘-다바의 무덤 무더기와 비교한다면 어떨까?

그 무덤 무더기는 롤의 사진에 보면 약 6-10구의 시체가 있다. 그렇게 대단한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패턴스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주장은 추측일 뿐이며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바이탁의 진술을 또한 생략한다 (Bietak, Avaris, p. 35).

실제로 전염병 재앙은 뼈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다니엘 앤토니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재앙(어떤 재앙이건)은 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골은 식별될 수도 없다.”

아직 우리는 도움이 될만한 분자생물학이나 DNA연구 자료도 없다. 게다가 텔 엘-다바의 많은 부분에서 생명체들은 평범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아, 또 이집트의 다른 부분들도 텔 엘-다바의 고고학적 수준 정도로 당대에 재앙으로 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span.s3 {font: 11.0px AppleMyungjo; font-kerning: none}

이는 분명 성경이 묘사하는 그런 재앙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랬다면 이집트에는 수천명을 묻은 무덤들이 대량으로 남겨져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룰은 약 10명 정도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그 죽음의 원인도 무엇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

이푸베르(아이푸어) 파피루스는 출애굽기의 열 재앙을 묘사하는가?

룰에 의하면, 우리는 이집트의 유명한 전설인 "이푸베르의 지혜"(Admonitions of Ipuwer)라 불리는 작품에서 성경의 재앙들에 대한 실제 목격담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본은 알란 가디너 경과 미리암 리트하임의 것이다. 이 작품의 사본은 단 하나 뿐이며 현재 네덜란드 레이든에 보관되어 있다. 연대는 약 기원전 1250년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룰은 이푸베르가 충실하게 기원전 1450년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믿는다. 룰은 이렇게 말한다.

"이푸베르는 13번째 왕조의 끝무렵 일어났던 사건의 이집트 역사 속의 목격자로서, 외국인들이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을 무릎꿇게 하는 것을 보았던 것 같다."(그의 책 150페이지).

룰은 이푸베르가 전해주는 사건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목록화한다(그의 책 150-153페이지).

- (a) 먼저 나일 강이 피로 변한다
- (b) 그 다음 농작물이 파괴되고 가축이 죽는다
- (c) 그것이 이집트의 파괴로 이어진다
- (d) 그 다음 어둠이 온 땅을 덮는다
- (e) 장자가 죽는다

(f) 노예들이 이집트의 부를 약탈한다

시간적 효과를 노리는 '먼저'나 '그 다음'과 같은 단어의 사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룰이 이푸베르와 관계있는 사건들의 연속을 점검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푸베르의 사건 순서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의 순서와 비교되는데 사용된다.

위와 같은 각각의 표제 아래서, 룰은 성경과 이푸베르간 평행을 위해 인용문들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표제를 보여주기 위해 그가 제공하는 평행은 다음과 같다.

"출애굽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출애굽기 7장 20-21절)

"이푸베르: 그 강은 피가 된다! 네가 그것을 마실 때 너는 너의 인간성을 잃고 물을 갈망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보면, 이푸베르와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언급은 정말로 제대로 평행을 이루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문맥에서 실제로 이푸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유사한 이집트 문헌과 비교한다면, 그 평행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다.

우선, 룰이 제시하는 순서는 이푸베르가 출애굽기의 재앙의 순서를 따르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룰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일부 순서를 바꾸었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 이푸베르의 실제 텍스트는 결코 룰이 제안하는 순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룰은 우리에게 자신이 사용한 판본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아마도 자신이 번역했을 지도 모른다).

비교를 위해 나는 미리암 리트하임과 알란 가디너 경의 표준 판본을 사용하여 룰이 언급한 부분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나는 J. A. 윌슨의 번역도 참고했다.

예를 들어, (e) 장자가 죽는다는 표제 아래 그가 인용한 이푸베르의 일부를 보자.

“보라, 재앙이 땅에 덮혔다. 피가 어디에나 있고, 죽은 자가 넘친다. 아이들은 벽에 부딪힌다. 매장지가 네가 오기도 전에 소리친다. 지금 화가 내게 슬픔이 된다. 자신의 형제를 땅에 묻은 자가 사방에 있다. 울부짖음이 애곡과 함께 땅을 채운다.”

롤의 번역에 내가 밑줄을 그은 두 문장은 이집트 원본을 포함하는 리트하임의 판본이나 알란 가드너의 판본을 참고하여 이푸베르의 다른 것에서 가져와 삽입한 것이다. 하지만 롤의 판본에는 그런 표시가 없다.

만약 누군가가 리트하임의 판본(Volume 1, p. 155, 2.5-6)을 본다면 알겠지만, “귀족의 아이들은 벽에 부딪힌다”는 “죽은 자가 넘친다”나 “매장지가...” 라는 문장에 선행하지 않는다.

벽에 부딪히는 아이들에 대한 표사는 이푸베르 4.3에서 발견된다(그리고 5.6에서 반복).

자신의 형제를 묻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도 역시 리트하임이나 가드너의 판본에서는 이푸베르 2.5-9에서만 발견되지만 롤은 그것을 2.13으로 옮긴다.

자, (e)라는 표제 하에 롤이 인용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자. 그는 그것을 열 번째 재앙(장자의 죽음)과 연결짓는다. “보라 재앙이 땅에 덮혔다. 피가 어디에나 있고, 죽은자가 넘친다...”

유사한 묘사가 리트하임의 판본에도 있는데(2.5-6), 그건 롤의 첫 번째 재앙(나일 강이 피가 되는) 이전이다.

즉, 만약 우리가 이푸베르의 실제 순서를 따라가면, 롤이 열 번째 재앙이라고 제안하는 그 묘사(2.5-6)는 그가 첫 번째 재앙이라 제안하는 그 묘사(2.10)에 앞선다. 이푸베르는 성경의 재앙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롤은 이푸베르 2.10에서 강이 피로 변하기 전, 2.5-6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큰 문제점을 갖는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5.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5.0px Times;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8.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5.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5.0px Times;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8.0px} p.p5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6.0px 'Apple SD Gothic Ne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5.0px Times; font-kerning: none} span.s3 {font: 16.0px Helvetica; font-kerning: none} span.s4 {text-decoration: underline ; font-kerning: none} span.s5 {font: 15.0px Times; text-decoration: underline ; font-kerning: none} span.s6 {font: 16.0px 'Apple SD Gothic Neo'; font-kerning: none}

따라서, 롤은 그대로가 아니라 출애굽에 맞추어서 재배치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푸베르의 순서를 따르지도 않는다. 롤은 너무 뻘뻘할 정도로 학자적 양심이 없고, 독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재구성한다.

문맥: 이푸베르 파피루스에서 강이 피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패턴스는 결코 관객에게 이푸베르에서 강이 피로 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푸베르에서 “강이 피가 된다”는 2.10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이 강에 빠진 이전 사건을 암시한다. 이 전체 문맥을 리트하임의 판본(Volume 1, p. 151)의 이푸베르 2.5-9를 통해 살펴보자.

“오, 마음이 폭력이 되고, 폭풍이 땅을 덮친다

피가 사방에 있고 죽은 자가 넘친다

매장지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소리친다

오, 너무 많은 사람이 강에 묻힌다,

강줄기가 무덤이고 무덤이 강줄기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그 강이 피가 된다”라는 구절을 읽기 직전의 몇 절이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그러니, 강이 피가 된다는 것은 분명 은유적이든 문자적이든, 셀수 없이 많은 시체가 강에 빠져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해 강이 피가 된 것이라 묘사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기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다.

이푸베르도 이집트 전역이라고 말하나?

롤에 의하면(그의 책 152페이지), 이푸베르는 도망치는 히브리인들에 의한 이집트 약탈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출애굽기 12장 35-36절 참조).

“그 노예는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취한다. 궁전에 속한 것들이 약탈되었다. 황금, 청금석, 은, 터키석들이 여성 노예들의 목에 있다. 부자들이 가난하게 되는 동안 그 땅의 빈자들이 얼마나 부하게 되었는지 보라.”

이 구절을 출애굽기와 평행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이런 이집트에 대한 묘사를 각기 다른 시대의 다른 자료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도시/국가의 운명에 대한 애가 장르에서 발견된다. 다음의 실례를 보라.

네페르티의 예언(리트하임, 143페이지)

내가 혼란에 빠진 땅을 보여주노라

무장한 약자가 무장한 강자가 되나니...

사람들이 묘지에 살게 될 것이며

거지들이 부를 얻을 것이며

강자가 살기 위해 노략질을 할 것이며

빈자가 빵을 먹을 것이며

노예가 존귀하게 되리라

메소포타미아의 아가데의 저주

아가데 왕국이 더이상 영속하지 못할 것이요,
그 미래가 불안하고,
그 성전은 흔들리고 창고의 보물은 흩어지며
나람신이 꿈에서 본 것이 이러하니
나람신은 7년을 움직이지 못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6절

여호와와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메넬헤트 1세(기원전 1991-1962년)의 통치 기간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연대에 의하면 요셉의 통치 이전의 이 네페르티의 예언에서 우리는 노예들이 존귀해지고 땅이 혼돈에 빠진다는 진술을 본다.

성경 책 중,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는 어떤 평행시킬 수 있는 재앙에 대한 묘사(피부병 등)를 볼 수 있고 또한 어둠에 대한 언급(출애굽기 10장 21-29절의 재앙과 비교)을 볼 수 있다.

아가데의 저주는 약 기원전 2000년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 작품으로써, 임박한 재앙에 관한 꿈을 꾸 왕, 그리고 내러티브 속 숫자 7의 등장이 특징인데, 이는 마치 창세기 41장에서 7년의 재앙에 대한 꿈을 꾸 이야기와 유사하다(특히 창세기 41장 27절).

무론 이푸베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특징이 민족적/공동체적 애가 유형에 거의 예외없이 발견될 수 있다. 아무리 실제 사건에 기초했는지 몰라도 그런 기록들은 목격자의 증언이어야만 한다고 주장될 필요가 없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역사가 아니라 그러한 아가데

의 저주나 이푸베르로부터 혹은 기타 지배적인 문학작품에서 그런 묘사들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롤은 몰랐을까?

```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

사실 롤은 이렇게 시인한다. “하지만, 만약 나처럼 당신이 출애굽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면...”(그의 책 154페이지)

짧은 수명이 곧 노예 생활?

패턴스 46분 30초-47분 즈음에, 롤은 이집트의 히브리인 노예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 논한다. 그 증거의 일부가 수명이다. 그는 아바리스의 사람들이 32-34세였음을 지적하고, 노예들이니까 그러했다고 말한다.

나는 이미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의 질병과 건강에 관한 책을 두 권 썼는데, 나름대로 빈틈없이 확인하길, 고대 역사 속 대부분의 기대 수명은 40대 혹은 50대가 거의 없다. 또 나는 고고학적 유골 연구(oste archaeology)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받아서, 적어도 유골에 남겨진 질병의 유형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텔 엘-다바의 유골 유적을 연구한 아이케 마인라드 원클러나 아랄드 하랄드 빌핑은 이렇게 말한다.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사망시 평균 나이는 상당히 낮았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죽을 때 약 30세, 남성은 약 34.4세임을 발견했다.

하지만 레바논의 철기 시대의 고고학적 장소인 카미드 엘-로츠(Khamid el-Loz)의 유골을 연구한 만프레드 쿤터가 제시한 평균 수명을 한 번 살펴보자. 쿤터도 카미드 엘-로츠의 유골과 고대 근동 다른 장소들을 비교한다.

카미드 엘-로츠(철기시대): 45세(남성), 35세(여성)

카탈 후유크(터키, 약 기원전 6000년): 34세(남성), 30세(여성)

레르나(크레타, 약 기원전 1800년): 37세(남성), 31세(여성)

아테네-고린도(약 기원전 450년): 45세(남성), 35세(여성)

```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5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6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span.s3 {font: 11.0px AppleMyungjo; font-kerning: none}
```

따라서 32-34세가 평균 수명이었다는 사실이 유골의 주인들이 노예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많지만(예를 들면, 지나친 체중은 특정한 뼈 혹은 척추에 어떤 손상을 주고 그런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 룰이 집중하고 있는 평균 수명은 그저 고대 근동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고, 그런 제안은 고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복 이야기: 하솔 왕 야빈이 발견되었나?

여호수아 11장에 의하면 하솔이라 이름하는 도시에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야빈을 죽였다(여호수아 11장 1, 10-13절 참고).

룰은 하솔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석판을 언급하며, 거기에서 자신은 성경이 언급한 ‘야빈’과 동일한 이름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약 1시간 41분 33초).

그의 책에서(290페이지), 룰은 심지어 그 설형문자 석판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극적으로 다시 이야기한다.

“정말 최근에, 아몬 벤-토르가 이끈 팀은 하솔 발굴을 담당했는데, 그 팀은 야딘의 발굴 더미에서 설형문자 석판 파편을 발견했다. 그 작은 파편이 아카드어 전문가에 의해 해독되었을 때, 언덕 위에 중기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하솔의 왕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이름이다. 그 왕은 야브니-앗두(Yabni-Addu), 즉 야빈이다.”

롤은 그 고고학적 기록이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를 입증해주는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실제 그 석판에 대한 출판물을 보았을 때, 롤이 또 증거를 오독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석판은 웨인 호로윳츠와 아론 샤퍼에 의해 “A Fragment of a Letter from Hazor,” *Israel Exploration Journal* 42 (1992): 165-67에 공개되었다.

롤의 주장은 전적으로 그 석판 첫째 줄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읽힌다.

아-나 이브-니[...] / a-na ib-ni [...]

이것은 전형적인 아카드어 편지의 인삿말로써, 단순하에 수신인을 가리키는 것이다(이브-니[ib-ni]에게...). 즉 이브-니는 수신인이다. 그가 언급한 ‘-앗두’는 실제 텍스트에는 없고, 그 텍스트의 편집자가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그 석판에 있는 이름은 롤이 주장하듯 야브니 혹은 야브니-앗두가 전혀 아니다. 그는 아카드어 접두사 (i-)가 있는 자리에 서쪽 셈어 ‘야’(ya-) 접두사를 삽입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다 더 ‘같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span.s3 {font: 11.0px AppleMyungjo; font-kerning: none}

더 나아가 하솔의 왕 중 혹은 어느 곳의 왕도 이브-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신인은 누구인지 모른다. 하솔의 출신은 아니겠지만.

이브니는 야빈이 아니다

롤의 더 큰 문제는 이브니와 야빈은 같은 이름도 아니고 단어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롤은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언어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일하다’는 표현이 동일한 문자가 동일한 순서로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브니와 야빈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만약 롤이 그것들의 같은 셈어에 뿌리를 둔 이름이라고 말하고자 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러하다. 그 경우 신중한 셈어 학자라면, 이브니와 야빈은 같은 어원을 가지지만 동일하진 않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같은 셈어 뿌리가 두 개의 이름에 있다고 해서 ‘같다’고 여겨진다면, **패턴스**는 그러한 같은 어근을 가진 이름은 하솔 정복 수백년 전후로도 수백개의 이름이 발견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롤이 하고자 하는 것은 1700년대에 Jorge에게 보낸 편지 한통을 발견하고선 그것을 특정 George(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와 동일시하겠다는 것과 같다. Jorge와 George 는 연대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엔 너무 흔해빠졌고, 고고학적 기록상의 누군가와 동일시하기도 어렵다.

롤은 실제로 자신의 책 291페이지의 도표에서 그것을 신중히 사용하는 듯하나, 자신이 그 책에서 표에서 설명한 것과 다큐멘타리에 나와서 하는 설명 간에는 불일치가 있다. “동일하다”는 표현과 “어원이 같다”는 역사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나는 언어학적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지만, 우선 그 설형문자 석판에 있는 이브니가 하솔의 왕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브니에서 접두어 ‘이’는 모음이다. 아카드어에서 ‘이’는 북서 셈어의 ‘야’나 ‘이’와 같은 어근을 갖는다.

이 이름이 야빈과 ‘동일하다’는 롤의 주장은 언어학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어는 다른 두 의미를 지니는 다른 두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알 필요가 있다.

b-y-n: “알다, 이해하다”

b-n-y: “건축하다, 창조하다”

어근 byn은 중간-약 어근(middle-weak root)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문법적 변화가 일어날 때 중간 어근 자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bny는 제3-약 어근이다. 문법적 변화가 일어날 때 마지막 자음이 유지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근들은 G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될 때 완전히 다르게 발음된다.(일반적으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 등으로)

bny에서 형태를 취하면 이브네가 되고 의미는 그가 건축했다, 그가 창조했다가 되고,

byn에서 형태를 취하면 야빈이 되고, 의미는 그가 이해했다, 그가 알았다가 된다.

실례로

byn: 야빈은 히브리 정경에서 적어도 18회(이사야 6장 10절, 다니엘 11장 37절 등)이상 나타나며

bny: 이브네는 신명기 25장 9절, 여호수아 8장 30절에 나타난다.

따라서, 야빈은 이브니와 같은 어근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그가 인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의 자료는 오직 하나인데, 바로 윌리엄 F. 올브라이트의 <The Biblical Period from Abraham to Ezra>의 102페이지의 각주 83이다.

올브라이트는 그 각주에서 이렇게 말한다.

“야빈이라는 그 이름은 쉽게 야브(니)라는 보다 원래 형태에 가까운데서 설명가능한 발음이다. 야브(니)라는 이름 그 자체는 전형적인 야브니-엘 혹은 야브니-하닷의 축약이다.”

그런데, 올브라이트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자신의 진술에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올브라이트는 자신이 주장한 대로 야빈 이면에 있어야 할 어근이 두 번째, 세 번째 뿌리 자음 사이에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하는 bny의 실례를 단 한건도 보여 주지 않는다.

롤은 올브라이트가 모든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올브라이트는 람세스의 시대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지하지만, 롤은 바로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롤은 왜 올브라이트의 그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허버트 후프몬은 서쪽 셈어 이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언어학자로서, 야-압-니-드다-간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이름들을 제3 약 형태의 언어적 요소를 지니는 그룹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또한 후프몬은 올바로 식별하길, 성경에 나오는 야빈을 G 혹은 C(사역동사) 형태든, 제2 약 어근(byn)과 동일시한다. 후프몬은 서쪽 셈어 이름들(특히 고대 시리아의 마리의)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올브라이트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후프몬은 1965년 자신의 연구를 내놓으면서 훨씬 더 큰 그룹의 이름들을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비교했다. 즉, 롤은 시대착오적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카드어 이름들에 대한 표준적인 저술을 쓴 셈어 학자 J. J. 슈탐은 ‘신이 낳은/창조한 아이’(Der Gott schafft das Kind)라는 의미를 지닌 이브니를 포함한 이름들을 분류하여, 그 동사는 제3-약 형태의 바누(bny, btw, 히브리어의 어근 bny로부터 온 바나[בנא]와 일치한다)라고 했다.

한편, 어근 bny는 G 미완료 3인칭 단수 형태에서 발음되는 ‘이브네’로 발음되며, 신명기 25장 7절, 여호수아 8장 30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야빈보다 이브니에 더 가깝다.

여호수아 8장 30절은 특별히 더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빈’을 발견하는 바로 그 성서의 책으로부터 온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bny와 bvn을 발음을 각각 다르게 한다.

만약 **패턴스**가 여전히 이브니가 야빈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브니와 훨씬 더 ‘동일한’ 이름들은 야브니(야브니-일루의 축약)이고, 그것은 기원전 14세기 라기쉬에서 발견되며, 그것은 엘 아르마나 서신 4번 째 줄, 서신 328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쪽 셈어 접두어 ‘야’(야-압-니-일루)를 갖고 있지만, 아카드어 발음의 특징인 ‘이’ 접두어는 갖고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야브니의 출현은 **패턴스**가 선호하는 출애굽의 연대(기원전 1450년) 이후이다.

에두아르트 자하우(Eduard Sachau, 1845-1930)에 의해 출판된 아람어 도기조각에 있는 또 다른 이브니는 아마도 기원전 410년 이집트의 유대인 식민지 엘레판틴에서 온 것일 것이다. 그 이름은 **יבני**이라 쓰고 자하우에 의하면, ‘이브네’라고 발음된다. 이브네는 분명 이브니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런 세부내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룰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헬레니즘 시대에 쓰인 것이라 생각하는 최소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이브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룰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발견은, 여호수아의 자료가 중기 청동기 왕조의 하솔의 왕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성경은 천년이나 후기인 헬레니즘 시대까지 쓰이지 않았다는 최소주의자들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그의 책 290페이지)

자하우의 도자기 조각이 보여주는 바, 어근 **byn**와 함께 있는 이름들은 거의 기원전 400년의 것인데다가 심지어 이집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고대 바빌론 설형문자 석판에 이브니가 출현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일을 들려주는 시대에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사본 중 기원전 3세기 이전의 것은 전혀 모른다. 룰과 **패턴스**는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특히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히브리어 자료들이 기원전 1400년의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5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6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span.s3 {font: 11.0px AppleMyungjo; font-kerning: none}

그 설형문자 서판이 제공하는 것이란, 단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셈족들 사이에 ‘야빈’이라는 이름이 흔했음을 보여준다. 이브니는 기원전 1400년에 여호수아 정복이 실제했다는 것을 확립시켜주는 연대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기원전 400년에도 여전히 쓰였기 때문이다.

야빈은 하나 혹은 둘?

마호니는 결코 명백한 오류, 즉 야빈과 하솔은 여호수아 11장 1, 10절에서 완전히 멸절된 것처럼 오이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솔 왕 야빈이 사사기 4장 2절에 또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변증가들은 두 명의 야빈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사기는 분명 여호수아 이야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경우를 적어도 하나 이상 담고있다(사사기 1장 11-15절, 여호수아 15장 15-19절).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따라서 사사기 4장에 야빈의 출현은 편집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설명이다. 그리고 그 도시와 사람들이 전멸당한 후에 몇년 뒤에 다시 하솔이 세워지고 다른 왕 야빈이 들어섰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무시된 아르마나

1시간 49분 35-46초 즈음에, 마호니는 기원전 1350년의 이집트 파라오 이크나톤 (Akhenaten)의 묘사로 넘어간다.

마호니와 이크나톤의 병치는 매우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마호니는 이스라엘인의 정복이 기원전 1440년 근처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하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크나톤은 엘 아르마나 서신에서 주요 인물로써, 그 수백 통의 서신 묶음은 기원전 1300년대에 이크나톤과 다른 가나안,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 등의 통치자들과 주고 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편지들은 성경이 말하는 장소들, 하솔, 예루살렘, 라기쉬 등을 언급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성경 히브리 민족이 기원전 1300년대에(만약 패턴스가 제시한 연대가 옳다면) 이 도시들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롤은 야빈에 대해 저질렀던 같은 종류의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아르마나 서신에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편지들에 언급되는 하비루/하피루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주장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다소 옛 기독교 변증가들은 하비루/하피루가 히브리 민족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지만, 호프마이어가 파악하고 있듯이(Israel in Egypt, 124페이지), 대다수 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히브리 민족을 포함하여 도시 외곽 지역에 살던 난민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마호니는 왜 아르마나 서신에 대한 논의를 생략할까? 왜 그는 거기서 그 주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

또한 마호니는 수백, 수십만 명의 사람 사람이 40년을 가나안 땅을 향해 무언가를 먹었다면 남겨져있을 엄청난 고고학적 무더기를 언급할만한데도 그것도 무시해버린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양고기, 염소고기, 소고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뼈가 그 지역 전체에 퍼져 있어야 할 텐데 말이다. 당연히 그는 그것을 문학적 과대포장이라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숫자를 믿을 필요는 없다. 롤과 같은 사람은 그것들을 좋아하겠지만.

결론

나는 “패턴스 오브 에비던스: 출애굽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일관적으로 무지함과 무능력과 속임수와 부정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호니는 자신의 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그는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긴 한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롤이나 다른 변증가들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들 대다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가 여느 변증 다큐멘타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제작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라고 땡땡거리는 롤은 자신이 ‘야빈’의 어원을 둘러싼 언어학적 논의를 평가하기에 실력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롤은 고대 질명에 대한 골상학적 연구에도 무지하며, 그렇기에 유골 유적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재앙과 노예에 관한 단순한 선언을 하고 만다.

롤이 쉬슈들의 전체 고고학적 보고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요약을 인용한다는 사실은 그의 무례함 혹은 게으름을 반영한다.

그가 ‘요셉의 무덤’에 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로베르트 쉬슈들은 거기에 뼈가 있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전체 보고서를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있다.

롤이 이푸베르를 인용하며 출애굽기와 더욱 강하게 평행을 이루게 보이도록 장면을 재배치 하는 짓은 속임수이다.

패턴스가 하술의 설형문자 석판에 있는 이름 하나가 성경의 야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속임수다. 만약 속임수가 아니라면 롤은 자신이 실제로 기록된 이름을 확인하는데 게으르거나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패턴스가 바이탁에 의해 제공된 무덤 무더기의 연대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텔 엘-다바의 관련된 지층의 연대에서는 이집트나 어느 도시나 재앙으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은 곳이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정직함도 있다.

롤은 자신이 성경에서 야훼나 엘을 섬긴 것으로 묘사되는 요셉과 야곱의 집이라 여기는 구조물의 실제 거주인은 이교도 신들의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전혀 밝히지 않는다.

롤은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은 기둥과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비디오와 책에서는서 관련 고고학적 요소들을 야곱의 12아들과 일치하게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롤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것도 아니다. 최소주의자들, 즉 롤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는 자들과 동일하게도, 그 자신도 성경의 역사성을 임의로 과장이니 시대착오적이니 하며 부정한다(출애굽기 1장 11절의 피라미드를 언급할 때 등, 26분 40-50초를 보라).

사실 롤의 핵심 주장은 이 표현에 있다. “만약 나처럼 당신이 출애굽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면...”(그의 책 154페이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는 성경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역사적인 것과 비역사적인 것을 결정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 다큐멘타리는 롤이 선택한 성경의 일부만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그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나머지는 문학이나 과대포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허한 시도일 뿐이다.

```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2.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3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Times New Roman';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min-height: 12.0px} p.p4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4.0px; font: 11.0px AppleMyungjo; color: #000000; -webkit-text-stroke: #000000} span.s1 {font-kerning: none} span.s2 {font: 11.0px 'Times New Roman'; font-kerning: none}
```

다른 모든 변증 다큐멘타리의 경우처럼, 희생자는 언제나 역사적 근거가 거의 없는 출애굽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한 ‘전문가들’에 의존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다.

출처: <http://science-infuse.tistory.com/809> [[시앙스 앙퀴즈] - 세상의 모든 리뷰]

댓글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CommentList.naver



anftoadufenf 옵션 열기

반증을 한다고 했는데 절대적반증도 아니고 게다가 성서해석적무지에다 적용의 미숙함을 제대로 보여주네

예레미야가 언급한 어둠이 물리적어둠인가? ㅋㅋ

게다가 아이푼어는 모두 물리적재앙을 말하고 있고 그 연장선의 어둠을 언급하기에 물리적어둠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앙은 장자를 가리지 않는데 왜 유독 장자들의 죽음이 언급되는가?

순서배치야 아이푼어가 꼭 출애굽기를 따르란 법이 없고..

게다가 노예들의 이름이 셈족이름이란것은 이들이 일반노예들이 아니라 국가소유의 노예들이었다단걸 보여준다

왜냐면 노예는 사오든 집에서 태어나든 주인이 이름을짓기에 이집트식이 될수밖엔 없는데 셈족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것은 곧 그들이 과거에 스스로 이름을 지을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전통을 유지한채로 국가소유가 되었으며 이는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아니면 설명할수 없기 때문이다

올브라이트가 이브니를 야빈으로 연결시킨것은 당연히 당시 왕들은 모두 신이나 신들의후예였기에 해당 의미를 가진 직명을 갖고 있었다 하솔왕 야빈이란 이름은 창조자란 신명과 동의어일것이란건 그저 상식적인 추론이다

게다가 야빈이 사사기에 다시 등장한것을 문제삼다니.. ㅋㅋ

그럼 바로란 명칭은 얼마나 더 오랜기간동안 자주 등장하는가?

직권명과 개인명을 구분못하는 한심한 주제를 여과없이 드러낸다

2023.11.26. 16:47

답글

공감공감0

댓글 입력